

전신 질환 원인의 턱변형증

서울중앙병원 치과
구강외과

- 성장 호르몬의 과분비 -

김 재 승
장 현 호

악교정 수술시 드문 경우이긴 하나 항상 염두에 두고 감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전신질환으로 야기된 턱변형증이다. 이미 알고 있듯이 거대증(gigantism)과 말단비대증(acromegaly)은 성장호르몬의 과분비로 인한 여러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.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pituitary의 adenoma이며, 이때 성장호르몬의 수치는 종양의 크기와 연관성이 깊다. 특히 말단비대증은 대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시작되고 그 안모형태가 특징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감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그 진행이 잠행성으로 상당히 서서히 진행되고 또 가끔은 20대에 시작되기도 하므로 이때는 감별에 어려움을 겪게된다. 이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으로는 손과 발, 머리의 크기가 커지며 후두의 비대와 부비동의 크기증가로 공명음(hollow-sounding voice)을 내게된다. 그리고 안면부위의 변형으로는 악골 특히 하악골의 증가와 혀의 비대로 하악골의 돌출과 치아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코와 함께 nasolabial fold가 더 뚜렷해지고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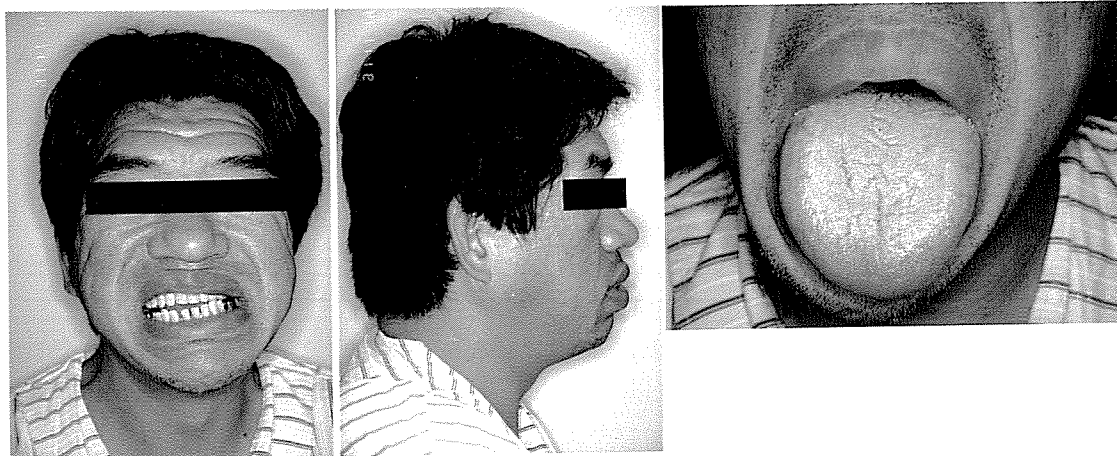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pituitary adenoma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faciol fold가 뚜렷해지며 악골 및 혀의 증대와 interdental space가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그러나 사실 이 질환은 이러한 심미적인 변형(cosmetic disfigure)과 함께 신체내 다른 여러 문제점도 야기한다.

기초대사량의 증가로 땀이 많이 나며 두통, 근무력증과 함께 관절염의 증세도 보인다. 또 약 절반 정도가 고혈압을 동반한다. 대개 말단 비대증을 갖는 환자들은 최종적인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여러 의사들을 거치게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7~8년 정도라고 한다.

이러한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성장 호르몬의 농도를 보는 것이 있는데 이질환이 있을때 대개의 경우 insuline resistance가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glucose 복용 1~2시간후 serum growth hormone을 측정하여 그 수치가 증가했는지를 보는 방법이다. 그외 몇가지 임상병리적 검사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X-ray 특히 C·T나 MRI를 통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아래 증례는 상당히 진행된 pituitary adenoma로 인한 말단비대증인데, 턱변형증이 드물기는 하나 전신질환으로부터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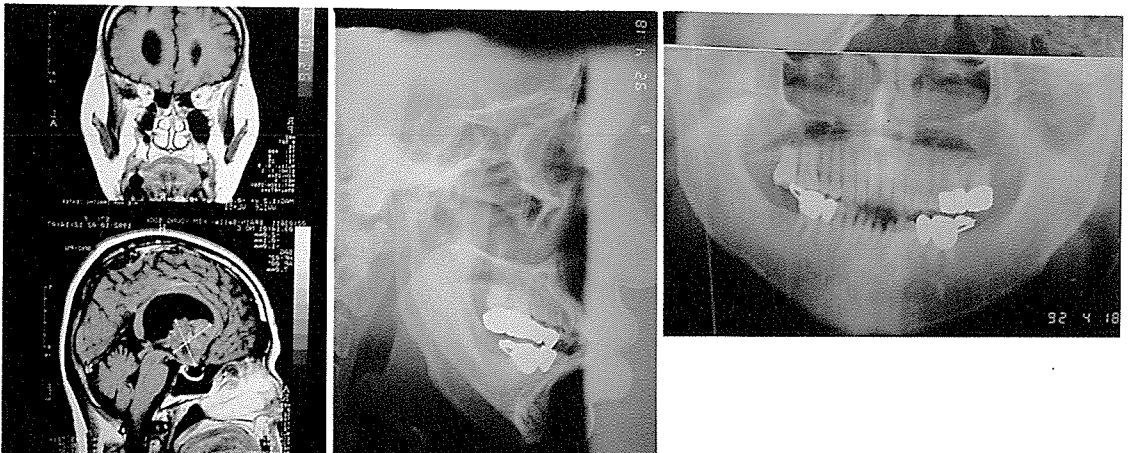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좌측의 MRI에서 pituitary에 tumor mass를 보여주고 있으며 lateral view 및 panoramic view에서 특히 하악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.